[P06-5] UN COPUOS Action Team 14 활동보고 (1)

문홍규[1], 한원용[1], 임홍서[1], 변용익[2]
[1]한국천문연구원 지구접근천체연구실 (Near Earth Object Patrol Lab.)
[2]연세대학교 천문대

2005년 2월, OECD GSF (Global Science Forum)에서 다루어왔던 지구접근천체 (NEO; Near Earth Object) 관련 의제가 UN COPUO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와 ICSU (International Council of Science)로 이관되었다. 지난 제 41차 COPUOS 과학기술소위원회 (STSC; Science and Technical Subcommittee)에서 NEO 분야가 이 위원회의 공식안건으로 채택되었으며, 2005년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 42차 과학기술소위에서는 Action Team 14 (AT14; NEO 분야 국제실무 팀)가 소집되어 향후 3개년 활동계획 수립과 후속활동 범위 등에 관하여 논의했다. 한국은 AT14에 참가, "NEO Survey Activities in Korea"라는 제목으로 Technical presentation을 발표했다.

COPUOS는 우주의 평화적 활용과 관련, 국제협력이 필요한 분야와 범위를 조사하고, 국제공동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또한 관련 연구활동과 정보교환을 지원하는 한편, 우주개발과 우주탐사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법적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이 위원회에는 한국을 포함, 6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P06-6] OECD GSF NEO 국제운영위 활동보고 (2)

문홍규[1], 한원용[1], 임홍서[1], 변용익[2]
[1]한국천문연구원 지구접근천체연구실 (Near Earth Object Patrol Lab.)
[2]연세대학교 천문대

OECD GSF (Global Science Forum)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지구접근천체 (NEO; Near Earth Object)에 의한 지구충돌 위협과 그 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해 논의해 왔다. 2003년, OECD는 "Workshop on Near Earth Objects: Risks, Policies and Actions"를 개최했으며, 같은 해 30개 회원국에 워크숍 최종보고서를 전달했다. 이 보고서는 대정부 권고안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NEO에 의한 위협은 실재할 뿐 아니라, 회원국 정부는 이 사실을 인식, 국가 차원에서 재난에 대비하는 동시에 국제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원국 정부는 이 권고사항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NEO 충돌재난"에 관한 정부의 인식부족과, 이에 관한 선거인들의 정치적 압력이 미미하다는 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밖에, "NEO 충돌재난"에 관한 정책적 논의와, 법제화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 부족이 또다른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 보고를 통해서 우리는 OECD 차원에서 논의된 문제 해결방안과 향후 과제 등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OECD의 NEO 관련 활동은 2005년 2월 제 12차 총회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으며, 이 의제는 UN COPUOS와 ICSU (국제과학이사회)로 이관되었다. 한국은 그동안 OECD NEO 국제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국 자격으로 활동해 왔으며, 이어 후속 COPUOS 활동에 합류했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기구 활동을 통하여 과학연구는 물론, 정보 및 기술교류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 분야의 국제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